

### ONE-STOP 서비스센터 및 건강센터 리모델링

본교 서울캠프 ONE-STOP 서비스센터 및 건강센터의 리모델링 개장식이 지난달 26일 진행됐다.

ONE-STOP 서비스센터와 건강센터는 제증명 발급, 유실물 처리, 건강검진, 학생 상담 등 학생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부서다.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센터와 서비스센터를 합치고, 두 대기 공간을 종합해라운지를 조성했다.

정진택 총장은 “공간의 변화가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ONE-STOP 서비스센터와 건강센터가 단순히 좋은 공간을 넘어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용재 비대위장은 “본교가 이번 리모델링을 기점으로 강의실 수와 자치 공간 부족 문제도 신속한 개선 해줄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in@

### 고령사회연구원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본교 고령사회연구원 창립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가 지난달 27일 청산MK문화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 이어 한·중·일 전문가들이 모여 ‘동아시아 고령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윤석준 본교 보건대학원장은 ‘한국의 노노부양 문제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원장은 “돌봄이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실시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는 재정적 한계가 오고 있다”며 “사회보장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쓰지 데쓰오(辻哲夫) 도쿄대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객원 연구원은 일본의 의료간병정책 ‘老老 간병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쿄대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의 프레일(허약) 예방 대응책을 소개했다.

류요셉 취재2부장 sonador@

### 윤을식 안암병원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취임

윤을식 본교 안암병원장이 지난 5일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제9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9월부터 2년이다. 윤을식 병원장은 지난해 11월 본교 안암병원장으로 취임했으며 로봇유방재건성형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병원 간 협력 강화와 필수 의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되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협회가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2007년 설립돼, 54개 병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심수연 기자 sue@

### 안암병원 고재철 교수, ‘가상 시술 시뮬레이터’ 개발

본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고재철(의과대 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술을 시현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뮬레이터는 환자의 영상 데이터를 이용해 실제 시술하는 환경을 가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고 교수는 이를 사용해 실제 환자에게 성공적인 시술을 수행했다.

기존에도 CT 영상으로 가상 X-ray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존재했다. 환자의 X-ray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 장치인 C-arm을 이용해 실제 시술 환경과 동일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임상에 적용한 것은 최초다.

고재철 교수팀이 개발한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통증 시술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 교수는 “가상 X-ray 생성을 통해 시술 도구와 해부학적 구조를 매칭하는 시뮬레이터이기에 다양한 의료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며 “다양한 분야에 응용돼 많은 환자들이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통증학회 공식 학술지 <The Korean Journal of Pain>에 게재됐다.

윤혜정 기획2부장 samsara@

### [안내] 72학번 입학 50주년 모교초청행사 개최

본교 72학번 입학 50주년을 맞아 모교초청행사가 오는 20일(목) 개최된다. 승명호 교우회장이 주최한 본 행사에는 정진택 총장, 김성대 72학번 동기회장, 73·74학번 대표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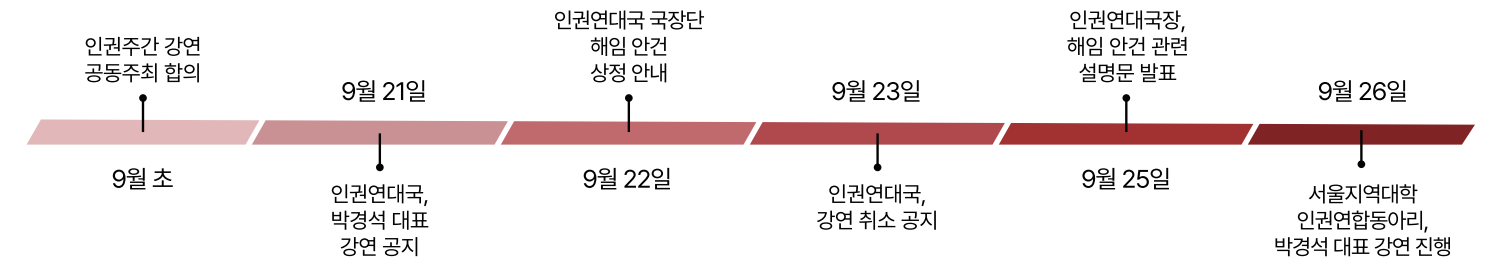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본관 앞에서 시작해 △캠퍼스 투어 △역사라운지 박물관 관람 △동기회 소모임 활동사진 및 전시작품 관람이 진행된다. 이어 11시부터 2시까지 교우회관 대강당에서 오찬 모임이 열린다.

박지연 기자 nodelay@

### 인권연대국 국장단 해임 안전 상정 논의

# 회비 남용, 강연 취소…논란속 인권연대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강연 취소 및  
인권연대국 국장단 해임 안전 상정 안내 타임테이블



### 소통 과정에서 문제 발생

### 5·18 기행은 입장 갈려

### 전학대회에서 논의 예정

지난달 22일 이용재 서울캠프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장)이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인권연대국(국장=명세은) 국장단 해임 안전 상정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해임 안전 상정 사유는 ‘국장단 및 중앙운영위원회 사전 논의 없는 인권주간 강연 인사 섭외 및 강행’과 ‘5·18 광주역사기행에서의 회비 남용 및 국서 내 사업 과정 미 공유’다. 이용재 비대위장은 “집행부원들의 해임 건 관련 의견을 악명으로 수집하고, 2022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이용재, 전학대회) 정기 회의를 진행한 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연 초청 중 미숙함 인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강연은 지난달 초 인권연대국과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의 공동주최로 합의됐다. 문제는 ‘소통’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용재 비대위장은 22일 공지한 ‘인권

연대국 국장단 해임 안전 상정 안내’에서 “9월 19일까지 중앙운영위원회 및 국장단에 ‘연사 및 부스 장소 컨택 중’이라는 보고밖에 없었다”며 “강연 초청 결정이 2주 전에 이뤄져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23일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국장단 회의 진행 후 인권연대국은 업무 진행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강연을 공식 취소했다. 명세은 인권연대국장은 25일 ‘인권연대국 국장단 해임 안전 상정에 대한 설명문’을 통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담당 업무였던 SNS 관리 및 홍보에 집중하느라 강연과 영화제 등 담당 업무가 아닌 행사에 관한 보고 업무를 더 많이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연대국의 취소 공지 후, 26일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단독 주최로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진우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고려대 지부 대표는 “지금까지 그 어떤 집행부에서도 보고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준 적이 없었다”며 “단약에 이번 해임 안전이 통과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대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총학생회 측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질서 자체가 독재적”이라며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해임까지 가는 것은 과하다”고 언급했다.

####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결론은 아직

‘5·18 광주역사기행에서의 회비 남용 및 국서 내 사업 과정 미공유’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용재 비대위장은 안내문을 통해 “지난 18일 2022년 2학기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 2, 3분기 결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5·18 광주기행에서 회비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사는 총 245만1800원을 지출했으며, 식사 및 뒤풀이 비용으로 555만9000원, 교통비로 136만4100원이 사용됐다.

회비 사용을 두고 이용재 비대위장은 “인권연대국은 광주역사기행의 사전 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비를 단 2만 원만 받았다”며 “불참 인원에 대한 보증금 혹은 불참비를 받지 않아 과도한 지출을 함으로써 총학생회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명세은 인권연대국장은 이에 대해 “기존과 달리 버스 대절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단체 신청이 취소되는 등 신청자 수가 예상과

달라지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은 당시 가능한 선택지 중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과정 공유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용재 비대위장은 “회비 사용에 관한 일체의 국서 내 사업 과정 공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명세은 국장은 “회의가 아닌 때에도 국장단 및 중앙집행위원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나누면서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최대한 즉각적으로 버스대절, 숙소예약 등의 과정을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해임 안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5일 열린 15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안전 상정에 대해 의견이 오갔으나, 5·18 광주역사기행 관련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용재 비대위장은 “28일에 중앙집행위원들을 모두 모아 회의를 진행했으나 해임 안전을 바로 다루지는 않았다”며 “10월 2일 예정된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5·18 광주역사기행에 대한 예결산특별위원회의를 지켜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전했다.

글 | 김영은·박진우 기자 press@  
인포그래픽 | 김채연 미디어부장 icetea@

### 제2회 고대앞 호랑이굴 플리마켓

# 골목길 마을 축제로 초대합니다

고대앞 호랑이굴 플리마켓이 지난달 28일 본교 정문 앞에서 열렸다.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2022 상가변영회 주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상점과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홍랑진 도시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는 “주민들 하나하나의 힘을 모아 ‘다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교 학생부터 제기동 거주자, 고대앞마을 주민협의체 등으로 구성된 23개 팀이 액세서리, 장아찌 수제 간식, 수제 유아 생활한복 등을 판매했다.

액세서리 및 소품 구역에는 본교 환경생태공학부 동아리 ‘환예중’ 팀이 자리했다. 환예중은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 작품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종합예술동아리다. 고대앞마을 주민들과 친환경 삼부 바나나 유리 모빌 등 업사이클링 제품을 직접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마켓 부스에서는 부원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엽서나 스티커 등을 판매했다. 김하나(생명대 환경생태22) 씨는 “1차 플리마켓에 이어 다시 참여했다”며 “주로 근처 주민들이 부스를 방문해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 사업가에게 플리마켓은 아이템을 선보일 좋은 기회가 됐다. 제기동에 개업 예정인 반려동물 카페 ‘퍼피펍피’는 사전 시장 조사 및 테스트를 위해 플리마켓에 나왔다.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 건강과 영양 면에서 장점이 있는 수제 강아지 간



주민협의체 부스에서 세제 무료 나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식이 주력 상품이다. 테이블 위 간식은 김밥, 쿠키, 경단 모양 등 알록달록한 색깔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각각 재료 설명이 적혀 있어 애완견의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할 수 있었다.

주민협의체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마련했다. ‘고친담(고대앞마을 친환경세제를 담아드려요)’ 프로젝트는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오면 무료로, 공병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300mL까지 친환경 세제를 담아주는 이벤트다.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들을 판매하는 바자회도 마련됐다. 현장지원센터 이현 사무국장은 “세제를 나눠주는 게 아직 낯설 수 있다”며 “이런 기회들로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여 왔으

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세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소 제기동 ‘카페고방’을 자주 찾던 최하서(남·35) 씨는 같은 카페 손님으로 만난 상가변영회 회장에 게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권유받았다. 그는 “이번 플리마켓에서 카페고방 사장님과 같이 쿠키를 만들어 나왔다”고 말했다. 그가 만든 곰돌이 쿠키는 부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였다. 그 외에도 각기 다른 직업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아이템을 정하고 열쇠고리 등을 손수 만들어 부스를 운영했다. 최 씨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분위기가 활기차서 좋다”며 “이런 행사가 정기적으로 있으면 괜찮

을 것 같다”고 전했다.

본교 학생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정문 앞을 찾았다 플리마켓에 방문했다. 박민경(사법대 지교20) 씨는 “평소 수공예품을 좋아해 관심 있게 봤고 대학생이 아닌 판매자분들이 많아서 좋다”고 말했다. 홍랑진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의 방문이 상가 방문까지 이어지도록 여러 조건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대앞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플리마켓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을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등 제로 웨이스트 관련 주민 대상 마을 학교 콘텐츠도 계획 중이다.

글 | 심수연 기자 sue@  
사진 | 한다빈 기자 binsoffthewall@